

고보연 개인전 '관계_그 이어져 있음'

5~17일까지 gallery숨서

오는 5일~17일까지 gallery숨에서 '관계_그 이어져 있음'이란 전시명으로 '고보연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노트에 따르면 '관계_그 이어져 있음'은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한 해였다. 처음 겪는 범유행 상황에 무서움과 두려움, 불안, 초조의 감정들이 다가왔다. 그 시기 제작하게 된 어머니, 여성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작업의 여정이었다. 우리를 태안에 풀어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주고 키워주시는 어머니.

연약하지만 강한 어머니와 그녀에게 연결되어 있던 자양분의 뿌리인 땃줄을 만들고 싶었다. 땃줄은 아이가 태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생명줄이다. 이는 심리적인 연결되어있어서 물리적 땃줄을 끊는 데는 30초이지만, 정신적 땃줄을 끊는 데는 30년도 더 걸린다고 한다. 어머니들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평생 그 자식들을 품고 지지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 삶의 고단함 앞에서 어머니를 찾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듯이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이어져 살아간다. 공동작업실, 공공미술, 공동체 커뮤니티, 재능기부 등을 꿈꾸며 살아왔다. 어머니의 땃줄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듯 보이지 않는 주변의 수많은 땃줄과 같은 가치들이 우리를 보호함을 알게 되었다.

작품을 만드는 일은 고된 일이다. 우리네 여성의 노동처럼 계속된 행위로 바느질하기, 숨 넣기, 청구멍 꿰매기와 같은 단순 반



오는 5일~17일까지 gallery숨에서 '관계_그 이어져 있음'이란 전시명으로 '고보연 개인전'이 열린다.

복이다. 어느 때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작품 제작을 도와주기 위하여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는 작가님들이나 지인들이 소리 없이 앉아 숨을 넣거나 바느질을 하게 된다. 그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자연스러우며 인간미마저 흐른다. 우리 조상들이 우물거나 안방에 모여앉아 바느질이나 다림질을 하듯이 함께했고 그 이어져 있음,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의 행위는 두레와 같았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은 이어져 있다.

사람 한 명, 사물 하나, 1초의 시간이라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혼자 아닌 나와 내 주변은 이어져 있고 서로가 위로를 주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는다.

이번 전시는 최재희(더 몸대표) 안무가와 협업작업이다. 장르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몸으로 표현해준 덕에 설치미술은 더욱 풍성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관한 문제를 고민했다. 예술

을 통해 삶의 위로와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다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그 원초적인 힘의 존재인 엄마가 본 작업의 모티브다.

안무가 최재희는 "신체적 언어는 여성이 경험하는 생명의 태동으로부터 세월을 따라 순종하는 여성성을 표현했다"며, "때로는 자신의 땃줄로부터 연결된 이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남몰래 흘리는 흐느낌과 회생 등 얼마로부터 존재하는 우리가 삶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그녀를 상기시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보연 작가는 전북대학교 및 동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 드렌스덴 미술대학에서 Diplom, Meister 과정을 수료했다. 2016 군산미술상,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2005 광주신세계 미술제, 2005 하정웅 청년작가, 2003 전북청년미술상 등을 수상하고 1996 한전프라자 신진작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 작가는 현재 군장대학교 겸임교수로서, 미술공감채움을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옷칠 목공예대전 빛낼 작품 찾아요"

남원시, 4일까지 작품 접수

남원시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을 빛낼 작품을 접수한다.

남원시의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은 우수한 목공예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고 시상을 통해 공예인들의 자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모전이며, 희망지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남원시 시청로 60) 또는 남원시 서울사무소(서울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출품 대상은 나무를 재료로 한 작품으로, 2개 부문(옷칠목공예, 같이)으로 나뉘어 접수를 하게 되며, 이중 총 37점을 선정해 국무총리상(대상) 등 총 1억2,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작품신청은 4월 7일부터 작품심사해 대국민 공개의견 수렴,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최종 결과를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춘향국악대전 비대면 심사현장 모습.

'춘향국악대전' 심사위원 공모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 16일까지 우편·이메일 접수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에서는 명실상부 최고의 소리꾼을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명창 등용문중 하나인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은 국악의 본고장인 남원시가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춘향제 대표행사로서, 올해는 5월 8일~16일까지 주말마다 4회에 걸쳐 안숙선명창의여정과 합파우소리체험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춘향국악대전은 5개 분야 13개 종목으로 대회종목은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학생부), ▲무용(일반부, 학생부), ▲민요(일반부, 학생부), ▲기악(일반부, 학생부), ▲기악 현악·병창(일반부, 학생부) 부문으로 치러진다.

자격요건은 ▲국가지정 및 시·도 지정 무형

문화재 보유자 ▲해당분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해당분야 종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인접분야 종사 경력 8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등 중 2개 이상 갖춘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본 대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거나 본 대전과 관련된 간부, 임원, 운영위원, 본 대전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사람은 심사위원 제외대상이며, 모집기간은 1일부터 16일까지 우편 또는 e-mail(wltn9126@hanmail.net)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춘향제전위원회 국악대전운영팀(063-620-5782)으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진호 익산문화관광재단 제2대 대표이사 취임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1일 재단을 새롭게 이끌게 될 제2대 대표이사로 문진호씨를 임명했다.

문진호 신임 대표이사는 (주)문화방송에서 기획조정실 국장을 거쳐 (주)엠비씨앤아이, 다문화TV, 대한방송뉴스 임원을 역임하였으며, 2년간의 대표이사 임기 동안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정현을 시장은 "방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 활성화에 힘써달라"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익산의 문화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표이사는 "시민의 비답에 귀 기울이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의 소통에 힘써 문화관광 전문기관의 역할을 폭 넓게 수행하겠다"며 "문화가 도시를

바꾸고 관광이 일상에 물드는 익산시를 만들도록 직원들과 함께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